정원에서의 걷기 소고:
금쇄동, 졸정원, 그리고 뤄삼가든 비교

성종상*

〈目 次〉

Ⅰ. 들어가며
Ⅱ. 정원과 경관 속에서의 걷기에 대한 논의
1. 걷기의 의미
2. 걷기의 네 가지 측면
3. 정원 속 걷기의 유형
Ⅲ. 정원 속 걷기의 의미와 형식
1. 정원 속 걷기의 두 가지 의미형식
2. 정관(靜觀)과 동간(動看)
3. 걷기를 위한 공간 양식 및 장치
Ⅳ. 금쇄동·졸정원·뤄삼정원에서의 걷기 비교
1. 금쇄동
2. 졸정원(拙政園, Zhouzheng-yuan)
3. 뤄삼정원(Rousham Garden)
4. 소결
Ⅴ. 마무리

Ⅰ. 들어가며

영국의 유명한 작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는 걷기가 스토리 전개에서 매우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다. 책 속 주요 인물의 만남이나 대화는 대부분 그들이 걸으면서 발생한다. 걷기가 만남과 대화의 중요한 매개 행위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원이나 정원은 그러한 걷기의 대표적인 공간적 배경이다. 수사적 경관으로서 정원(Moore, 1988:49)에서 걷기는 감상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걸음으로써 우리는 정원을 보고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 편의 잘 짜인 서사나 음악처럼 정원을 거닐면서 세심하게 구성된 경이들을 감상(위 책, 50)할 수가 있다. 특별히 걷기가 중시된 정원으로 필자는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한 조선조 별서 원림이나 구곡, 옛 로마시대의 역사를 모티브로 하여 전원 풍경 속에 재현한 영국 풍경식 정원, 그리고 온갖 조화로운 장치와 기법으로 조물주보다도 더 신묘한 경치를 재현하려한 중국의 사가원림을 주목하고자 한다. 닫힌 공간에서 특정 지점에서의 우월적인 단일 시선만이 강조되는 정형식 정원에 비하여 이들은 정원 안팎으로 배치된 경물을 연결하는 자유로운 동선을 따라 감상하는 구도를 취함으로써 걷기에 의한 감상 방식이 중요하게 간주된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 글에서는 정원에서의 걷기가 갖는 의미와 유형, 그리고 제 측면을 고찰해 보고, 조선조 원림인 금쇄동(金鎖洞)과 중국의 대표적인 사가 원림인 졸정원(拙庭園), 그리고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작 중 하나인 뤄삼(Rousham) 정원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인 실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원과 경관 속에서의 걷기에 대한 논의

1. 걷기의 의미

걸을 때에만 나는 명상한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하는 것도 멈춘다. 오로지 발과 함께 내 마음은 작동한다. - Jean-Jacques Rousseau[1)]

동물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계와 연결된 몸을 갖고 있다. 인간의 자각의식과 이성은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이 취하는 방향 및 상호작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항구적인 특질로서 걷기(Jacks, 2004: 5)를 통해 인간은 지구와 연결된다. 한편 인간의 사고 작용은 발로 시작된다. 곧 걷기는 몸으로의 앎에 이르는 통로(Jacks, 2007: 270)인 것이다. 루소가 "우리의 철학 스승은 우리 발"[2)]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 레베카 솔니트는 주위로부터 단절된 실내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경고하면서 발, 곧 걷기를 통해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걷기를 통해 세계에 대한 보다 더 총체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Jacks, 2004: 5). 신체적 경험을 통해서 이해나 개념화시키는 능력을 조직하는 데에 필요한 스키마가 만들어진다. 결국 걷기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이해에 근본이 된다(위 책: 6).

걷기는 속도에의 저항이다. 빠른 잊음의 시대에 자동차로 인해 상실한 주변 일상 풍경을 우리는 걷기를 통해 되찾을 수가 있다. 또한 걷기는 탈산업시대에 시간, 공간, 그리고 육체의 실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걸음으로써 우리는 세계 속에, 특정의 공간에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 특정 공간이 장소로, 거주지 또는 영역으로, 이름을 갖는 지역의 거주처로 전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걷기를 통해서 이다(Hillman, 2001: 3).

조선의 명철 퇴계나 율곡,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속에서 걷기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퇴계나 율곡을 비롯한 조선의 수많은 선비들은 빼어난 산수를 찾아 구곡(九曲)을 경영하고는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강학하곤 하였고, 아리스

1) Jean-Jacques, *The confession of Jean-Jacques Rousseau*, J.M. Cohen trans.(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p. 382

2) 장자크 루소, 『에밀』. 크리스토프 라무르, 2007. 61쪽에서 재인용.

토텔레스는 울창한 숲에다 학교 Lykeion을 세우고 나무 아래를 산책하거나 앉아 쉬면서 제자들과 토론하곤 했다.[3] 한결같이 그들은 걷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학문과 철학적 사유세계의 깊이를 더하고자 했던 것이다.

2. 걷기의 네 가지 측면

직립보행은 동물적 존재로서 인간이 터득한 특권으로 간주된다.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음으로써 인간은 더 높고 멀리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에게 동시 활동의 외연을 확장시켜 준 셈이다. 걸으면서 우리는 보거나 듣기도 하며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한다. 미국 마이애미대학 교수인 Ben Jacks는 디자이너에게 유의미한 걷기라는 실천행위를 보기 sighting, 측정 measuring, 독해 reading, 그리고 몰입 merging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Jacks, 2004: 6-8). 이 네 가지 측면들은 각기 구분되어 작동된다고 보기보다는 걷기라는 행위 속에 통합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1) 보기 Sighting

우리는 걸으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정보와 자극을 받는다. 인체학적으로 눈은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눈을 통한 시각적 지각은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다. 걸으면서 경관 속의 물리적 사물과의 관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시각에 의한 보기의 반응이다. 본다는 것은 경관 속의 물리적 대상들의 위치와 배열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해는 수치로 계측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동 및 인지 반응을 적절히 유도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로 제공된다. 대상지를 찾아 조사하고 분석하는 조경가들의 일도 절대적으로 걷기를 통한 보기에 의존한다. 대상을 그리고 추상화하는 행위 역시 보기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발로 움직여 지나가는 사이에 눈은 주변을 둘러보게 되며, 발로 머물면서 경험하는 동안 눈은 주변을 아우르면서 인식한다. 걷기의 즐거움은 가까운 사물을 보거나 만지는 지각으로 얻어진다.

2) 측정 measuring

공간을 알거나 정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걷기이다. 에베레스트 산이나 북극을 정복하는 일은 걷기로 시작되고 걷기로 끝난다. 인간은 두 다리로 세상을 측정하고, 세상은 그 다리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18세기 말 프랑스 영토가 '코뮌'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뉘었을 때 그 기준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무르, 2007: 14). 자신이 살 집터를 고르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땅을 찾아가 이리저리 걸으면서 살만한 지를 판단해야 한

3)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 세운 뤼케이온은 일종의 철학학교였다. 그 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제자들과 산책을 하며 토론하기를 즐겼는데, 그런 연유로 이들은 소요학파라고 불리기도 했다.

다. 낯 선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는 집과 동네 주위를 수시로 돌면서 동네의 전체 공간 구조와 분위기를 가늠하게 된다. 자나 측량기기를 발명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은 몸을 사용해서 공간을 측정해 왔다.[4] 땅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에는 걸음이 가장 적절한 방편이었다. 자신의 보폭과 걸음수를 알면 공간 거리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걷기에 있어서 측정은 길에 방향성이 부여될 때 특별히 잘 이루어진다. 특정의 목표 지점까지의 전체 거리를 유념하면서 걸어 온 거리와 남은 거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재 지점을 감지하게 된다. (Lynch, 1973: 55) 그렇게 신체를 통한 측정을 통해 인간은 무한한 우주 속에서 유한한 존재로서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 방향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독해 Reading

인간은 걸으면서 주위에 보이는 경관을 읽는다. 걸으면서 끊임없이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들어가 해석된다. 그것은 그 속에 담겨있어 온 기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신이 새롭게 부여한 의미일 수도 있다. 우리는 걸으면서 혹은 여행을 하면서 일종의 텍스트로서 풍부하고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관을 읽고 감상한다. 경관은 무수한 기호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종종 텍스트로 비유된다. 우리에게 읽혀지고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텍스트인 것이다. 나무든 건물이든 간에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늘 바뀐다는 점에서 경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여행자는 스토리를 안내 삼으면서 경관을 탐사하고, 경관은 스토리를 기억해 내도록 도와준다(Jacks, 2004: 7). 조경가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자연경관을 보며 식생의 구성이나 패턴, 숲의 연혁을 판독해 내려는 것이나, 도시 가로경관에서 건물의 요소나 양식, 전면 파사드와 간판 등으로 이미지를 읽어 내는 것도 모두 경관 독해로 가능한 일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 거닐면서 소소한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경관을 이해하게 되고 장소와의 유대감을 키우게 된다. 독해로서의 걷기 행위에는 자료 수집과 조립, 해석과 재현, 그리고 상상적 허구의 과정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경관 텍스트는 종종 수많은 상호관련성에 따라 무한히 가변적이면서 항행가능한 하이퍼텍스트와 비견된다(Jacks, 2004: 7; 2007: 270).

4) 몰입 merging

우리는 경관 속을 거닐면서 종종 그 속에 몰입되는 경험을 한다. 천천히 걷다보면 시간감이 바뀌고 영원성 속으로 빠져들게 들면서 감각이 온전히 우주로 열린 듯한 상태로 됨으로써 주위의 미세한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된다. 어느 순간 깊이 몰입하게 되면 세속적 근심이나 삶의 상념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감각과 인식의 창이 무한히 확장되게 되는

4)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 척도인 척, 자, 뼘, 치 등이나 서양의 인치, 피트 등 많은 측정의 기본 단위가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것이다. 갑자기 세상과는 단절된 채 이제껏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상과는 구별되는 이 같은 몰입은 대상지와 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로 이어짐으로써 설계가들에게 유용한 단초를 제공받게 해준다. 때로 대상 앞에 잠시 멈춰 서서 감각을 열고 몰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 주체와 객체간의 거리감은 소멸되고 자신도 그 속에 하나로 통합된다. 신체의 투입, 곧 걷기를 통해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몰입의 기본 요건이다.

3. 정원 속 걷기의 유형

정원 속에서 걷기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특정의 정해진 경로를 찾아가며 주파하거나 아무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쉬거나 무언가를 감상하느라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한다. 매번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걷는가 하면 어떤 곳은 일생에 단 한 번 찾아 가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길 가의 꽃과 나무를 감상하며 천천히 걷는가하면, 주변 경치나 경물에는 눈길조차 던지지 않은 채 그저 통과하기도 한다. 이 같이 정원에서의 걷기는 정원 방문의 목적과 의도, 동반자 유무, 사건과 행태의 유형, 장소적·시간적 상황 그리고 정원 자체의 공간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원사가 Hunt는 정원 속에서의 걷기를 소요(逍遙, stroll), 산책(散策, ramble) 그리고 의례형 걷기(rocession, ritual)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Hunt, 2003: 188-213).

1) 소요(逍遙, ramble)

소요의 자의(字意)는 쉬엄쉬엄 노닐 듯이(逍) 떠돌아다니다(遙)라는 뜻이다. 곧 아무런 의도나 목적지 없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거닐기를 즐기려는 개인적인 의지나 호기심에 의해 유발되는, 이동 자체에 즐거움을 두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걷기이다(Hunt, 앞책: 189). 정원 속에서 정처 없이 걷기, 즉 소요는 루소가 즐겼다고 하는 빈둥거리기를 연상시킨다. 그것은 '우연에 내맡겨진 걷기'로서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정원 속을 서두르지 않고 한가롭게 이리저리 거니는 것이다. 뚜렷한 목표나 시간에 대한 아무런 제약 없이 거니는 자는 몸으로 닿는 느낌에 스스로를 내맡긴 채 순간의 광경을 음미(라무르, 2007: 43)할 수가 있게 된다. 걷기란 경관 속에서 몸을 이동시키는 일이다. 걷는 동안에 우리는 온 몸의 감각으로 주위 환경이나 경물과 만난다. 눈으로는 발걸음마다 달라지는 경치를 보면서 발로는 돌멩이의 딱딱함이나 낙엽의 푹신함, 그리고 흙의 보드라움을 감지한다. 지저귀는 새소리나 벌레소리, 발에 밟히는 낙엽소리를 들으면서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나 따스한 햇볕, 코끝에 와 닿는 축축한 숲 속 공기를 촉지하기도 한다. 이렇게 온 몸의 감각세포를 활짝 열고 걷다보면 어느 순간 자연 속에 한 몸이 된 듯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그 순간은 세상사는 물론 자신의 존재조차 잊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비워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소요는 산책과 구분된다.

2) 산책(散策, stroll)

한자어 책(策)은 꾀나 계책(計策)을 말하니 산책이란 골똘히 생각하며 천천히 이리저리 걷는 걸 말한다. 이동 자체에 자신을 내맡김이라는 점에서 소요나 산책은 동일하다. 그러나 산책은 정원 내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띄며, 방향 감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소요와 다르다. 또 산책에는 자의식적 행위로서 사색(思索)이나 숙고(熟考)가 동반되며, 다른 이가 보고 있으리라는 기대를 내포하기도 한다.[5] 산책에는 도중에 끼어들어 이동에 리듬을 부여해 주는 사건 사이의 한정된 루트를 함축하기도 한다. 일종의 취미로서 산책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소그룹 활동이 되기도 한다(Hunt, 앞 책: 189). 수많은 담과 가산으로 구획된 채 좁은 원로가 구불구불하게 난 중국의 정원들은 산책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정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8세기 영국의 경관 미학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픽처레스크 정원을 묘사하고 기술하는 데에 적절한 개념으로서 산책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위 책, 193)에서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이 지닌 산책과의 상관성을 읽어 낼 수도 있다. 걷는 이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시간상의 제약 유무 등으로 볼 때 산책은 위의 의례형 걷기와, 아래에 소개하는 소요 사이의 중간 지점 그 어디쯤에 해당된다.

3) 의례형 걷기(procession, ritual)

특정 인물과 관련된 오브제나 의미요소를 정원 내에 배치함으로써 그 장소에 새로운 역사가 새겨지게 되고 장소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그럼으로써 정원 내 걷기 방식도 소요(stroll)에서 의례형 걷기(procession)로 전환하게 된다. 특정 시간이나 구간 내에서 단순히 오가던 길에 신념이나 사상에 관련된 의미소가 부가됨으로써 의식적 행위를 요구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행렬 또는 의례적 장소로서 정원에는 특정 사건이나 서사, 혹은 인물과 관련된 공간적 상징이 구축되어 있다. 특정의 의미 혹은 스토리가 상징적으로 표상되거나 재현되어 배열된다. 대상 또는 의미를 상징하는 표상물을 순차적인 공간 질서 속에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것들을 배열하여 서사구조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동선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상징물은 사건이나 서사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코드로 간주되며, 정원 내 길을 사건과 시간을 연결해주는 이야기 가닥으로 삼을 수 있는(Moore et al., 1988: 35) 것이다. 방문자들은 마치 음악 악보나 서사처럼 정원을 거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감상하며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5) 태어나 평생을 머물며 산 도시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칸트가 매일 오후에 늘 걸었다고 하는 걷기가 산책으로서의 이런 정의를 잘 충족시킨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Ⅲ. 정원 속 걷기의 의미와 형식

정원에서 발생되는 동적인 이동으로서 걷기는 그 의도나 목적에 따라 의미 형식과 공간 양식을 달리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미 형식이란 의미를 지닌 형식 또는 형식에 함축되어 있거나 드러나 있는 의미라는 뜻으로 걷기라는 행위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간 양식은 걷기 행태를 그 같은 의미나 의도에 맞도록 하기 위한 공간적 특성으로서 유형화된 양식을 말한다. 정원에서 걷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의미를 지닌 형식과 공간 양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정원 속 걷기의 두 가지 의미형식

1) 순례 pilgrimage

순례라 함은 신심의 고양과 참회나 속죄, 또는 성찰 등의 목적에서 종교상의 성지나 유서지(由緖地)를 찾아다니며 참배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종교적 배경과 의도에 연유한 정신적인 활동인 것이다. 성지 순례는 대표적인 의례로서의 공간 여정이다. 인도, 중국 등의 사찰들이 명산이나 성스러운 산지에 위치하여 구도자들이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6] 역시 순례로 간주할 수 있다. 신앙 행위로서 순례는 성스러운 장소를 향해 걷는 여정이다. 순례자는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향해, 하나의 약속을 향해 걷는다(라무르, 2007: 37). 정원에서 순례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곳이 일상적인 실용이나 감각적 체험의 장이 아닌,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 공간 속에 표상된 형이상학적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꽃이나 채소를 키우는 화단 혹은 수련이나 물고기를 키우는 연못과 같은 장식적인 경관요소보다는 옛 신화나 고사에서 나오는 신화나 인물에 관련된 건물이나 조각 등이 정원을 구성하는 주요소가 된다. 짧은 경구나 명언 등을 새긴 문구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들 건물이나 조각, 또는 문구는 정원의 동선을 따라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유지하도록 배열된다. 그럼으로써 정원 내 동선은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텍스트로서의 순로가 되는 셈이다.

2) 유 遊

장자 미학에 닿아 있는 유(遊)는 조선 원림에서의 걷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어이다. 동양적 산수미의 체득방식으로서 유[7]는 산수간에 자유로이 거닐면서 이상적인 지경

6) Norris Brock Johnson, “Mountain, Temple, and the Design of Movement : Thirteenth-Century Japanese Zen Buddhist Landscapes”, in *Landscape Design and the Experience of Motion*, ed. by Michel Conan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3) Johnson의 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의 명산대찰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7) 일반적으로 유는 호이징하나 까이오아가 말하는 ‘놀이’(PLAY, GAME) 또는 실러가 말하는 ‘유희(遊戱)’

을 찾아 정신적으로 노니는 것을 말한다. 총체적인 신체 체험을 토대로 한 자연과의 정신적 교감이 유가 열어주는 가능 세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 다른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운 정신으로 자연운행의 원리를 찾아내고 심미적으로 즐긴다는 의미와 함께, 그러한 경지를 찾기 위한 실천 행위로서 (주로 산수간을) 자유롭게 거닐며 노니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그것이다. 전자는 정신적 차원에서의 지경이고, 후자는 육체적 차원에서의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양자를 함께 다루되 후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산수간에서 거닐면서 노니는 신체 활동을 걷기의 한 형식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동양적 산수미의 체득 방식으로서 유는 산림을 찾아 들어가서 자연과의 심미적인 교감과 정신적 해방감을 추구하는 걷기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걷기라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심미 교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일견 신체의 운동감각적 사고 kinetic thinking 개념과 일맥상통해 보이면서, 진정으로 조각품의 형태를 실감하면서 보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이사무 노구치의 주장과도 닿아있다.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 몸의 느낌, 촉감 등이 상상력 넘치는 사고의 유력한 도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믿음[8]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위에서 다룬 정원 속 걷기의 유형으로 볼 때 유는 경우에 따라 산책과 소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수행된다고 생각된다. 비교적 강한 방향성을 지니는 구곡 속에서의 걷기나 유산(遊山)[9]행위로서의 유는 산책으로서의 걷기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해 산수간 정원 속에서의 유는 시간의 제약도 비교적 없고 방향성이나 의도도 보다 더 자유스럽다는 점에서 소요에 가까운 걷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 개념과 통하기도 하지만 '도에 나아가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등 심각하고 진지한 지적 작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양이 주로 감각적이고 구체적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놀이' 개념이라면, 동아시아의 유는 거기서 나아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차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신은경, 1999: 68)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지평을 기조로 하면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가 갖는 의미로서 정신적 유희와 심미적 실천이라는 양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성종상, 『고산 윤선도의 원림을 읽다』, 도서출판 나무, 2010. 86-89쪽; 신은경, 『풍류-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사, 1999. 68-71쪽; 장파, 유중하 외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385-391쪽.

8) 운동감각적 사고란 몸의 운동 이미지나 기억된 동작의 측면에서 사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곧, 머리가 아닌 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창의적 사고나 실천적 앎에 있어서 신체경험을 중시한 개념으로서 손지식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외, 박종성옮김, 『생각의 탄생』(서울: 에코의서재, 2007). 213-237쪽.

9) 유산은 일종의 산수유람 행위로서 전국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즐긴 것을 말한다. 특별히 조선조 선비들은 인(仁)과 지(智)를 각각 산과 물에 비유한 논어의 가르침에 따라 옛 선현들의 족적이 남아있는 산과 하천을 찾아 즐기면서 심신을 도야하였다. 고려 때에도 있었던 유산기 문학은 15세기 이후 17세기까지 집중적으로 쓰였다.

2. 정관(靜觀)과 동간(動看)-정원 속 걷기와 쉼을 통한 감상 방식

정원 속에서 걷기는 기본적으로 길, 곧 원로에서 이루어진다. 원로는 출발점과 마지막 지점이 있게 마련이다. 마지막은 정원 밖으로 나가는 출구이거나 때로는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정해진 면적 안에서 조성되기 마련인 정원에서 원로는 가능한 한 정원 곳곳을 두루 둘러볼 수 있도록 길게 구성된다. 그러면서 주요 지점에는 특정의 장치를 두어 멈춰 서서 쉴 수 있게 한다. 보고 즐길 만한 요소가 위치한 곳에는 앉아 쉴 수 있는 돌이나 의자, 혹은 정자와 같은 건축적 요소가 배치된다. 그렇게 하여 정원 속에서의 동적 체험은 일련의 걷기(움직임)과 쉼(멈춤)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저명한 정원이론가인 Chen Congzhou(陳從周)는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원설계에 수미일관되게 다루어야할 중요한 개념으로서, 정원 감상에 있어서의 정관(靜觀)과 동간(動看)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정관, 즉 정지한 상태에서 본다는 것은 감상자들이 머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망지점이 허여되었음을 의미하고 동간, 즉 움직이며 본다는 것은 꽤 긴 탐방 경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을 동시에 고려해보면 작은 정원에서는 정관이 우세한 반면에 동간이 종속적이어야 하고, 큰 정원에서는 그 반대여야 한다[10]고 주장한다.

기실 움직임(걷기)과 멈춤(쉼)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걷기는 쉼이 끝나면서 시작되며, 멈춤 또한 걷기의 끝 지점이기 때문이다. 정원 속에서 경관을 즐긴다는 것도 이 두 가지 상보적인 행위의 조합으로 얻는 무수히 다른 연속되고 중첩되는 경관으로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다 대상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경관감상의 차원과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해진다. 예를 들어 바위에 걸터앉아 시냇물을 내려다본다고 하자. 앉아 있는 나[멈춤]와 흐르는 시냇물[움직임], 제방의 나무{멈춤]와 물속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움직임], 그리고 물가의 바위[멈춤]와 그 아래 물속에 노니는 물고기{움직임}…. 이렇게 멈춤과 움직임이 중첩되면서 경관은 다기해지고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시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시선의 주체인 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 변화는 더욱 배가된다(Sung, 2011: 49).

3. 걷기를 위한 공간 양식 및 장치

디자인이라는 인공적인 행위를 통해 조성되는 정원은 소유주나 작정자에 따라 나름의 의도를 지니기 마련이다. 여기서는 그 같은 의미나 의도에 맞는 걷기 행태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적 장치로서 보행동선의 공간적 양식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

10) Chen Congzhou, *Shuo Yuan- On Chinese Gardens* (Shanghai: Tongji daxue chubanshe, 1984: 1), Stainslaus Fung, “Moment and Stillness in Ming Writings on Gardens”, in *Landscape Design and the Experience of Motion*, ed. by Michel Conan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p. 243에서 재인용.

1) 순로 順路

순로란 동선의 진행 방향에 맞도록 만들어진 길을 말하니 공간의 순차적인 질서가 중시되는 장소에서의 동선으로서 중요한 요건이 된다. 정원에서 순로는 동선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그 중간 과정을 의미나 이용상의 순서로 구성하여 전개시킴으로써 구축된다. 그것은 장소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거나, 전체 공간을 하나의 시나리오 속에 통합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데에 유용한 매개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은 순로에 맞추어 잘 구성된 공간에서 한결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대체로 강한 주제를 갖는 정원이나 공원에서는 동선의 엇갈림이나 감상의 중복을 피하고 원활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을 분리하는 순로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2) 회랑(回廊)과 곡랑(曲廊)

회랑은 보랑(步廊)이라고도 하는데 지붕이 있는 긴 복도형의 통로를 말한다. 주로 햇빛이나 비 등을 피하면서 보행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콜로네이드나 중세 수도원의 클로이스터, 중국 원림 등에서 회랑의 면면을 볼 수가 있다. 굽어짐을 의미하는 곡은 변화를 유발하기 쉬운 구조이다. 곡랑이란 그 같은 굽이진 회랑을 말하는데 동선에 요리저리 변화를 주어서 걷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적절한 장치이다. 곡랑은 꺾인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시선과 동선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계성은 〈원야〉에서 "지자곡(之字曲)"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전의 곡척곡(曲尺曲)에 대해서 자신이 고안해 낸 지자곡이 훨씬 더 변화무쌍하게 공간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計成. 〈園冶〉).

3) 미로 Maze

미로는 탐사를 위한 정원 형식으로서 가장 극적인 사례이다. 길의 패턴이 그 안에 단단히 결속되어서 아주 먼 거리가 작은 면적 안에 압축되어 있는(Moore et. al., 1988: 46) 미로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이다. 그리스의 신화에서 유래된 미로는 공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치이다. 때로는 미로를 따라 걷는 행위가 종교적인 의례나 간구의 의미로도 대체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로에서 미로는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구성된다.

4) 석문(石門)

석문이란 돌로 만든 혹은 세운 문을 말한다. 돌을 다듬고 가공하는 정도에 따라 석문의 디테일은 차이가 아주 크다. 한국 전통정원에서 석문은 주로 산수간에 조영된 원림에서 발견된다. 자연이 빼어난 곳에 만들어진 원림은 대체로 주변과 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적당히 열어

두어 원림과 자연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원림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석문은 사실상 별다른 경계가 없는 원림에서 영역과 동선 구도에 있어서 강력한 상징적 장치이다. 고산 윤선도의 금쇄동 원림은 독특한 형태의 석문으로 시작되며, 보길도 부용동 동천석실에는 모두 7개의 석문이 있었다고 전한다.

5) 물길

조선조 별서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인 물은 계류나 샘, 또는 연못 등으로 다양하게 구사된다. 흔히 인체의 피로도 비유되는 물은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활력소이자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이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리면서 물소리를 냄으로써 정원에 생동감과 동적 움직임을 선사한다. 특별히 물길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산지에 조성된 조선조 정원은 많은 경우 물길을 따라 찾아 들어가는 구도를 취한다. 소쇄원이나 다산초당[11]이 그러하고, 고산 윤선도가 조영한 해남의 세 정원- 수정동, 문소동, 금쇄동은 물론 보길도의 세연정이나 동천석실도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인간세와의 적당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산수간 원림에서 물길은 그 공간적 거리 확보의 징표이면서 동시에 인간세상으로부터 찾아 들어오는 통로이자 안내물로 간주된다. 사실 그와 같은 구도는 이미 무릉도원에서도 복숭아 꽃잎을 띄워 내려 보냄으로써 인간을 그 곳으로 유도하는 매개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 물길은 양측 산을 따라 굽어지고 길게 이어짐으로써 세속과의 거리감을 강조하면서 정원에 그윽하고 깊은 유현함을 더한다.

Ⅳ. 금쇄동·졸정원·뤄삼정원에서의 걷기 비교

1. 금쇄동

금쇄동은 조선 중기 고산 윤선도(1587-1671)가 해남에 조영했던 원림이다. 전쟁과 사화, 그리고 개인적 역경 끝에 그는 나이 53세 되던 해에 종가를 큰 아들에게 맡기고 향리 해남 인근의 산지에 정원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수정동에서 시작하여 문소동으로 이어진 원림생활 두 해만에 그가 새로 찾아낸 산 정상부에 조성한 정원이 금쇄동이다. 산꼭대기에 있던 옛 산성 터를 활용하여 연못과 집을 앉혀 거처를 정하고는, 아래 쪽 계곡에서부터 정상으로 오르는 노선을 따라 위치한 경물을 찾아 이름을 짓고 의미를 부여(성종상, 2010: 45)하여 조성한 정원이다. 문소동으로 이어지는 계곡부의 점로(店路)에서부터 약 200여 미터를 올라야 다다

11) 다산초당 뿐만 아니라 다산 정약용이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정원으로서 묘사한 글에서도 물길은 중요하게 간주된다. 다산은 제자 황상에게 “산수가 아름다운 곳”으로서 “강가 보다는 시냇물을 끼고 있는 산골짜기”가 은자(隱者)가 거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 …擇地須得 佳山麗水 然江山不如溪山 洞門…『與猶堂全書』<題黃裳幽人帖>

〈그림 1〉 안개 속의 금쇄동 원경. 산 정상부 옛 산성터를 중심으로 하여 조성된 정원이다. © 저자. 2006. 08.

〈그림 2〉 커다란 석문 형상의 불차. © 저자. 2004. 03.

를 수 있는 정원인 것이다. 산 위로 오르는 길은 원래 있던 암석과 지형, 그리고 내려다보이는 경관을 고려하여 그가 주요 지점마다 설정해 둔 주요 경물들을 연결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그가 금쇄동을 발견하고 감동하여 쓴 글 〈금쇄동기〉에는 모두 22개의 경물[12]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 경물은 대체로 계곡 아래 인간세계에서부터 산 위 신선의 세계로 오르는 도중에 접하는 것들과, 정상부 내에 주요 지점에다 설정되어 있는 것들로 구분된다. 전자가 계곡에서부터 정상으로 오르는 선형의 경로를 구성한다면, 후자는 주정원으로서 정상 내 주요 면모를 이루는 중요한 장소들로서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 선택적으로 다다를 수가 있다.

금쇄동의 길은 산을 오르는 구간과 산 정상부에서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는 원로,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올 때 택하는 하산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산 위로 오르는 구간은 계곡부 가장 아래쪽의 불차(不差)에서부터 산성 바로 아래 휘수정을 거쳐 월출암 아래 회심당에까지 이르는 단선적 선형의 여정[13]이다. 두 번째 정상부의 동선은 국고대를 거쳐 난가대에

12) 〈금쇄동기〉에서 고산이 직접 기술한 경물은 22개소인데 그 중 3개 정도만 인공요소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연물(주로 바위)이다. 전자 중에서 휘수(정), 회심(당)은 건물이고 금쇄(산성)은 옛 산성흔적이다. 그나마 고산은 휘수와 회심을 묘사하면서도 정과 당이라는 용어를 생략함으로써 인공건물로서 보다는 그들의 입지와 주변 자연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해남문화원(1996), 『고산문학현장조사보고서』. 고산문학축제총서 제 1집; 해남군(1999), 『윤선도 유적 및 현산고성』. 명지대학교부설한국건축문화연구소; 해남군(2011), 『고산 윤선도정원유적 정비계획』.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3) 점로(店路)에서 다리를 건너 불차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을 오르면서 하휴(下休), 기구대(棄拘臺), 중휴(中休), 상휴(上休), 창고(暢高), 쇄풍(灑風), 휘수(揮手), 지일(至一), 금쇄(金鎖)를 거쳐 회심(會心)에 다다르는 단일 구도의 선형 동선이다.

이르는 영역,[14] 유회를 거쳐 인빈에 이르는 영역,[15] 고송에 이르는 영역 등 몇 가닥으로 갈라진 동선, 그리고 기존 산성을 따라 정상부를 순회하는 동선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하산로는 첫 번째 선형 경로를 다시 돌아 내려가는 길과, 국고대를 거쳐 문소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유회 옆 남문으로 해서 산 아래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 등 여러 개의 다른 경로가 있다.

〈그림 3〉 휘수 뒤 지일 폭포. © 저자. 2006. 08.

금쇄동에서 걷기를 구간과 영역에 따라 세분해 보면 산 아래에서 정상부 정원으로 올라가는 일방향형의 여정은 '산책'에 해당되는 걷기라 할 수가 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계곡부 초입에 위치한 불차와 마지막 도착점인 회심당이다. 불차는 정원 금쇄동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커다란 돌이 비스듬히 서 있는 석문(石門)이다. '틀림이 없다'는 말 뜻 그대로 누구나 일단 이 석문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그가 미리 정해 둔 경로를 따라 올라가 정원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6] 이 경로는 걷기의 공간 양식상 지형에 따른 '순로'의 형식을 취한다고 할 수가 있겠다.

회심당(會心堂)은 정상부 정원의 주영역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커다란 바위 월출암 바로 아래에다 지은 작은 거처이다.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회심당은 산꼭대기에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금쇄동 원림의 핵심 요처라 할만 하다. 주위로는 "십대(十臺)의 원경과 일정(一亭)의 천석(泉石)이 수백보 사이에 둘러 있고, 당(堂)이 그 가운데 자리하여 통합하고 있"어서 사방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오갈 수 있는 거점인 것이다. 이곳 회심당에서부터 정상부 각 방향에 산재하고 있는 다른 경물들로 가는 걷기는 다분히 '소요'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 사방으로 갈래난 길과 그것들을 하나로 엮어 산정상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성길이 갖는 동선체계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미 인

14) 국고대(跼顧臺), 집선대(集仙臺), 흡월(吸月), 연화(蓮花), 첨홀(瞻忽), 난가대(爛柯臺) 등을 이어주는 동선으로 선계(仙界)를 표방하는 영역에 해당된다.

15) 유회(有懷), 추원(追遠), 인빈(寅賓)으로 구성된 동선으로 유교적 가치가 표방되어 있는 영역이다.

16) 이를 달리 말하자면 이 석문을 통과해야만 자신이 조영해 둔 금쇄동 원림을 제대로 찾아 들어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언이다. 인간 세상에서 선계 금쇄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이는 마치 영국 Stouhead정원에서 연못을 따라 들어가다 처음 만나는 건물인 Flora 신전 입구 위에 새겨진 "*Procul, o procul este profani*"(세속사여 이곳으로부터 멀리 사라질지라; 버질의 시 Aeneid에 나오는 문구)(Chalresworth, 2003: 267)라는 문구를 연상시킨다. 다만 금쇄동에서는 그런 문구나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림 4〉 휘수에서의 부감. 점로가 아스라이 내려다 보인다. © 저자. 2004. 03.

간세를 멀리 떠난 산 위에의 걷기이니 만사를 잊고 자유로이 거닐 수 있는 곳인 셈이다. 그런 마음의 자유에서 거닒이 허여해 주는 최고 경지는 몰입, 곧 자연과의 합일이다. 마음을 비우고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닐다 보면 어느새 주변 자연과 한 몸이 되어 깊은 교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과의 교감에 관한 한 금쇄동은 연역적 방식의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의 걷기는 다분히 정신적이며 시적인 차원에서의 유(遊)라고 할 수가 있다. 입지부터 인간세상과 거리를 둔, 산 정상이니 금쇄동을 찾아 드는 이라면 누구나 세속사를 벗어 던지고 자연과 거리낌 없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자세를 갖게 된다. 마음이 그러하니 석문, 바위와 물 등 기존 지형지물에 맞추어낸 산길만으로도 자연과의 정신적인 만남을 위한 걷기에 충분한 것이다.

2.졸정원(拙政園, Zhouzheng-yuan)

중국 강남 소주의 졸정원은 1509년경 명나라의 퇴직 관료 왕헌신(王獻臣)이 자신의 고향에 은거하기 위해 조영한 정원이다. 시내에 위치한 절터를 개조한 정원으로서 정원 구성이나 세부 기법 등에서 강남 사가원림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원 규모(4ha)가 크기도 하지만 주택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를 이룬(팽일강, 1989: 32) 채 동원, 서원, 중원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른바 정원 속의 정원(園中園)으로 불린다. 동서로 긴

〈그림 5〉 졸정원의 문창. © 저자. 2005. 02. 2008.01

〈그림 6〉 수공간을 따라 난 긴 회랑. © 저자. 2005. 02. 2011.10

대지에서 중앙에 조성된 연못을 중심으로 한 내향형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지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수면이 전체 정원을 하나로 엮어 주고 있으며 물 주위로는 주요 건물들과 인공으로 쌓아 올린 산이 각기 다른 공간으로 분절시키면서 전체 정원에 깊이와 넓이를 강조하고 있다. 곡선과 직선으로 풍부한 변화를 지닌 호안선을 따라 난 주동선은 곳곳에서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며 넓은 물과 높은 대에 이르도록 구성되어 있어 정원 구석구석에 숨겨진 다채로운 경관을 한껏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졸정원에서의 걷기는 유형상 '산책'에 가깝다. 입구와 나오는 지점이 분명하고 걸으면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경물과의 만남이 강조된다.

걷기 실천으로 볼 때 졸정원에서는 '보기'와 '측정'의 성격이 강하다. 요리저리 복잡하게 짜인 원로를 따라 걸으면서 기묘하게 연출된 온갖 경물들을 보고 감상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그림 안에서 움직이듯" 원로에서 관람자의 시선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발걸음마다 변화하는 경관들을 관찰하는(邊走邊看)" 구도(이덕형, 2008: 467)인 것이다. '측정'은 그런 걷기에서 '보기'와 함께 일어나는 기작이다. 좁은 정원영역을 한껏 확장시키기 위해 공간을 극도로 압축시킨 정원 속을 거닐면서 공간의 유한과 무한함을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중국 사가정원이 취하는 기본 구도로서 압축은 담장을 사이로 요리저리 비좁게 난 동선망과 가산에 잘 드러나 있다. 공간적 변화가 강조되는 중국정원(Lou Quinxi, 2003: 139)에서는 가산이나 연못 혹은 건축물 등을 설계할 때 공간의 규모와 구성에 최대한 많은 변화를 갖도록 구성하려고 한다. 끊임없이 구불거리고 오르내리며, 막힌 듯 돌아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동하면서 시선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동선과 함께 시선도 앞으로 열렸다가 옆으로 돌아가게 되기도 하고, 위로 치켜다 보며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는 가하면 갑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염없이 물속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구불한 길이 아늑한 곳을 통한다"(曲徑通幽)(팽일강, 1998: 48)는 것은 한정된 정원 공간 속에서 가산과 담장 등을 통해 교모하게 공간을 감추고 나누어서 실제 보다 훨씬 크고 유현하게 느껴지도록 구성하려는 수법이다. 해서 중국정원의 산책은 자연히 그 같은 작정자의 공간 척도에 대한, 숨겨진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자면 정원을 방문하는 이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엮어진 원로를 따라 걸으면서 은연 중에 그 정원이 얼마나 큰 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 담긴 의도는 곳곳에 배치된 비경을 찾는 흥취를 극대화시키려는 것

〈그림 7〉 졸정원의 시선조절 장치. © 저자. 2005. 02. 2008.01

이다. 막히고 감춰진 길을 걷다가 갑작스레 연못이나 비경을 만나는 곳에 마련된 누정이나 평대는 하염없이 경관 속에 빠져들 듯 앉아 정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결국 졸정원에서의 '몰입'은 걷기가 아닌, 정관(靜觀)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들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다.[17] 이와 유사하게 졸정원에서의 '독해'는 수많은 시각 조절 및 유도 장치들로 인해 사실상 정해놓은 구도 속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기묘하게 짜여진 원로에서는 마치 조물주의 조화처럼 신묘한 경물들 사이에 놓여진 누정에 걸린 편액(扁額)이나 대련(對聯)은 원림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경(意境)이 담겨있다. 마치 화의(畵意)나 시정(詩情)처럼 정원의 의경미(意境美)를 함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원 속의 텍스트로서 이들은 독해되어 보는 이의 감상을 심화시켜준다. 대체로 이들 의경은 단순히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이나 미각 등의 다른 감각까지 동원함으로써 시정화의(詩情畵意)적 의취(意趣)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결코 작지 않은 졸정원 곳곳에 배치된 수많은 정원요소들 – 곡랑, 다리, 괴석, 가산, 담장, 문창, 포도 등은 이와 같이 다양한 의도의 걷기와 감상을 위한 장치들인 셈이다.

3. 뤄삼정원(Rousham Garden)

뤄삼정원은 켄트 작품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정원[18]이면서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정원이다. 정원사가 Hunt는 뤄삼을 고전과 고딕식 이미지를 이용해서

17) 중국정원 이론가 Chen Congzhou의 설명에 의하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졸정원은 정관보다는 동간이 우세하게 적용되는 정원이다. Chen Congzhou 앞 책. Fung, 2003: 243에서 재인용.

18) 브라운 Charles Brown에 의해 만들어진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 화가이자 무대장치사였던 켄트 William Kent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뤄삼을 탈바꿈시켰다. 그는 화가의 눈으로 일련의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어 내듯이 정원을 디자인하였다. 아카디아식 이상향을 그려낸 17세기 르네상스 그림의 목가적인 자연미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시적이며 독특한 정원으로 개조하였다. 뤄삼은 그의 시적 발상을 통해 평화로운 전원 풍경과 고대 로마의 고전적 미학을 잘 조화시켜 낸 역작으로 평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Siciliano, Paul C. *Landscape Interpretations : History, Techniques & Design Inspiration*. Thomson Delmar Learning. 2005: 198-205; Horace Walpole. *History of the Modern Taste in Gardening* (Moore, 1988:125에서 재인용); Husey, C., 1967. English Gardens and Landscapes 1700-1750. London: Country Life Ltd. (Rogers, 2001에서 재인용).

영국 경관에다 역사적 그림을 재현하려는 켄트의 시도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고 만족스러운 작품(Hunt, 1996: 210)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림 8〉 저택 앞의 열린 시각구도. 잔디밭 끝의 말을 공격하는 사자상과 그 너머 언덕이 한 축선 안에 들어온다. © 저자. 2011.02.

'저택 - 보울링 그린 - 말을 공격하는 사자상[19] - Praeneste[20] Terrace - 비너스 계곡'으로 이어지는 예전 브라운의 공간구도[21]를 거의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켄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면서도 직전까지 대세였던 프랑스 평면기하학식이 갖는 장점까지 잘 살려내었다. 작은 강과 언덕이 이룬 부드러운 구릉을 따라 난 곡선형 원로를 거닐면서 수평선으로 무한히 시선을 연장, 확산시켜 상상력을 환기시키도록 유도해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동시에 시선은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면서 주요 지점에 놓인 로마시대의 역사적 경물들을 연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뤄삼에서의 걷기는 '산책' 및 '순례'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 방문객들은 세심하게 구성된 원로를 따라 걸으면서 고전적인 서사가 정원 풍경 속에 아름답게 어우러진 정경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원로는 출발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가 잘 짜인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그 경로가 완전히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원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진행 방향이나 순서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이지 않는 축선에 맞춘 수림대 사이로 시야가 멀리 펼쳐진 '열린 시선구도'는 전체 경로상에서 여러 번 반복되며 경관 연출의 주조를 이룬다. 그 첫 번째는 저택 앞 잔디(Bowling Green)와 말을 공격하는 사자상, 그리고 언덕 아래 강과 그 너머의 Cotsworld 언덕과 평탄지

19) Scheemakers의 작품으로 이태리 빌라 에스테장의 로마분수 the Fountain of Rome 옆에 있는 동일형상을 모사한 것이다. 여기서 공격하는 사자는 로마를, 물리는 말은 티볼리를 상징적으로 암시한다(Hunt, 1996: 212-213).

20) 이태리 중부 Rome 동남주 작은 도시의 옛 이름으로 유명한 로마시대의 유적지이다. 리고리오 Ligorio나 팔라디오 Palladio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들에게 주 연구대상이었고, 이후 이태리 로마로의 대여행 Grand Tour에서 빠지지 않는 답사지였다. Addison, Virgil, 그리고 Horace 등 여러 문필가들이 자주 언급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21) 뤄삼정원은 정원주 Dormer경의 손자가 Charles Bridgeman(1690-1738)에게 의뢰하여 1837년에 조성했던 것을 불과 5년여 만에 다시 William Kent(1685-1748)를 초빙하여 개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 유행하던 풍경식으로 개조된 켄트의 설계는 이후 큰 변경 없이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그림 9〉 Praeneste Terrace 밑 Arcade 전경(좌)와 그곳에서의 조망. 강과 그 너머 전원이 한 눈에 들어온다. Ⓒ 저자. 2011.02.

를 멀리 조망하는 열린 구도이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검투사(Dying Gladiator)' 동상이 놓인 Praeneste terrace이다. 이곳에서는 다시 동상 Dying Gladiator를 중앙에 두고 양측 수림대 사이로 강 건너까지 멀리 열린 조망을 즐길 수 있다. 세 번째 '열린 시선구도'는 급경사를 따라 내려가 숲 속으로 좁은 길을 따라가면 이르게 되는 비너스의 계곡 Vale of Venus[22]에서 다시 확인된다. 백조와 큐피드, 목양신과 숲의 신 동상이 좌우로 배치된 가운데 팔각형 연못을 내려다보며 캐스케이드 위에 서있는 비너스상 앞으로 열린 시야가 멀리 언덕까지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열린 시선구도'는 원로의 서북측 끝 에코의 신전과 Praeneste Terrace 바로 아래 Arcade, 그리고 원로 동측 끝 지점의 피라미드 하우스 등에서 다시 반복된다. 이들 반복되는 '열린 시선구도'는 뤄삼에서의 걷기에서 '보기'를 위한 중요한 결절점이 되면서 경관 감상상의 연속적인 스토리와 리듬을 제공해 준다. 즉 이들 장소에는 로마 시대 역사경관을 표상한 조각이나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어 일련의 내러티브를 전달한다. '독해'를 요하는 텍스트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각 지점에서는 전면으로 열린 구도를 통해 멀리 펼쳐진 전원 풍경을 즐길 수가 있다. 전형적인 영국식 전원 풍경으로서 주변은 뤄삼정원 감상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방문객들은 수시로 정원 너머로 보이는 주변 풍경과 조우하게 되어있다(Hunt, 1998: 215). 이를 보강하기 위해 켄트는 정원에서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Eyecatcher로 개선문을, 그리고 그 앞에다 정미소를 일부러 세워 두었다. 개선문은 옛 로마를, 정미소는 당시 영국의 농업경관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이태리 로마의 서사와 경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이 갖고 있는 영국 특유의 전원 풍경을 담아냄으로써 당시 유행한 이태리 역사경관 이미지의 영감을 지역성으로 재구성해내는 데에 성공(Hunt, 1996: 216)한 것이다. 픽춰러스끄 미가 미적 부류로 보다는 일종의 '보는 방식'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이나, 그것이 〔경관을〕 보고 이

22) Villa Aldobrandini로부터 따 온 것이다.

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Garcia-Fuentes, 2011)는 지적에서도 '보기'가 뤄삼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조망, 빛, 그리고 그늘에 기초해 설계한 것(Moore, 1998: 134)이라는 월풀의 찬사가 가장 잘 들어맞는 곳은 비너스 계곡에서부터 에코 신전에까지 이르는 구간이다. 냉천 Cold bath으로 이어주는 작은 수로는 짙은 수림이 이루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반짝이는 물을 실어 나른다. 부드럽게 굽어진 선형은 Horgath가 말한 "선의 미"를 찬미(위 책, 134)하듯 굼틀거리며 발길을 이끈다. 직선에 가깝게 병렬한 느릅나무 숲 사이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거대한 아폴로 상은 뒷모습을 드러낸 채 멀리 무언가를 보고 있어 방문자를 호기심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 발길은 다시 내리막을 따라 강가로까지 유도되어 강물을 따라 길게 난 산책로로 이어진다. 이렇듯 뤄삼에서 걷기는 로마시대 역사적 상징물과 영국의 전원 풍경이 이루는 변주를 번갈아 감상하면서 다시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퇴로는 왔던 경험의 역순이다. 이전에 오면서 봤던 경치들을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경이를 제공하면서, 빛의 각도와 하늘의 감각적 접촉도 역전된다. 그것은 저택 근처의 밝은 데서부터 숲과 물이 만드는 짙은 어둠으로의 여정이면서, 하늘까지 한껏 열림에서부터 거의 완전히 차단되는 열림과 닫힘의 여정이기도 하다. 전체 정원 속에서 저택, 보울링 그린, 테라스, 비너스 계곡, 에코 신전 등은 열린 경관을 조망하는 주요 지점이 되고 하하(ha-ha), 병렬된 느릅나무 숲, 강과 내리막 지형 등은 시선을 무한히 확장시켜주는 시선 조절장치이다.

〈그림 10〉 짙은 느릅나무숲 사이에 우뚝 선 아폴로상. 등진 채 멀리 향한 시선 쪽으로 방문객의 발길을 유도한다. © 저자. 2011.02.

〈그림 11〉 뤄삼 앞 Cherwell 강변 산책로. © 저자. 2011.02.

4. 소결

이상 살펴 본 금쇄동, 졸정원, 그리고 뤄삼은 모두 자연형 정원으로서 ‘발견을 위한 걷기’가 중시된 정원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걷기의 구체적인 특질과 양상은 세 정원이 조금씩 다르다. 자유로운 곡선의 산길로 구성된 금쇄동에서는 걷기를 통한 ‘몰입’이 중시되었다면, 다양한 인공요소로 미로처럼 얽힌 원로를 가진 졸정원에서는 기묘한 경관요소들과 연계된 ‘보기’와 ‘측정’이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구릉지 위 전원풍경 속에 자리 잡은 뤄삼에서는 곳곳에 배치된 인공물(동상, 조각, 건축물)을 ‘보기’와 그 의미를 ‘독해’하기가 중요 하게 간주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걷기 유형으로는 금쇄동의 산지 지형을 따라 올라가는 진입로에서는 ‘산책’이, 정상부 여러 갈래의 산길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선택 여지가 많은 ‘소요’가 중시되었다면, 강한 인공적 구도로 짜인 졸정원과 뤄삼에서는 ‘산책’에 가까운 걷기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다만 전원 풍경 속에 요처에 로마시대 역사적 경관물을 배치한 뤄삼에서는 ‘순례’로서의 걷기 성격도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표 1 참조). 이들 정원에 있어서 걷기의 세부 특질상의 차이는 정원 내 동선 구성의 기조와 공간 구도, 그리고 원로의 구체적인 선형이나 유도장치 등을 통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도모되고 있다고 하겠다(표 2 참조). 영국정원의 명문뿐만 아니라 조각과 공간들이 방문자를 정원으로 초대하는 것(Charlesworth, 2003: 285)처럼, 원로를 따라 명명된 자연 경물들(금쇄동의 경우)이나 인공으로 만들어진 경물이나 가산들(졸정원의 경우)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다.

〈표 1〉 금쇄동, 졸정원, 뤄삼정원의 걷기 특질 비교

정원명	입지 위치	원로의 특질				걷기 실천의 양상				걷기 유형
		선형	동선유도장치	포장	경사	보기	측정	독해	몰입	
금쇄동	산지 지형	자유곡선 지형에 맞춘 산길	석문, 계류, 암석	비포장	급경사 있음	○	○	○	●	느슨하고 선택 여지가 많은 산책 +소요도 중시됨
						몰입이 중시됨				
졸정원	시내 (성시)	기하곡선 복잡한 미로형 길	회랑,곡랑,담장,다리	다채로운 문양포장	경사 일부	●	○	○	○	산책에 가까움
						보기가 중시됨				
뤄삼	전원 (구릉)	자유곡선 구릉지의 기복 있는 길	동상, 테라스, 수목열식	잔자갈 포장	일부구간 경사	●	○	●	○	산책에 가까움 +순례적 걷기
						보기, 독해가 중시됨				

〈표 2〉 금쇄동, 졸정원, 뤄삼정원에서의 걷기를 통한 시각체험 비교

정원명	정원 내 동선 구성		감상 방식	시각적 체험을 위한 장치	주요 체험 대상	
	기본 기조	공간 구도			원내요소	원외요소
금쇄동	수직적 상승구도 중시; 세속과의 거리유지	출발과 끝이 일치하지만은 않는 열린구도	동간 + 정관 상대적으로 동간 중시	소수 건물(정자, 당) 석문; 기존 바위와 지형 활용	자연경물위주 (바위, 연못, 계류)	자연+인문경관 천계(해, 달, 별); 선산, 길(점로), 마을
졸정원	심오, 유현, 복잡한 동선 연출; 조화로운 소우주 추구	출발과 끝이 일치하는 순환 구도	동간 + 정관 상대적으로 정관 중시	다양한 건물(루,정,당,헌,사 등); 문창,회랑,곡랑, 다리,담장,원지; 가산과 조산	가산,태호석, 정자, 연못	높은 담으로 외부조망 불가; 제한된 자연위주- 천계(해, 달,별)
뤄삼	영국 전원풍경의 픽춰레스크식구성 + 로마시대 역사화 재현	출발과 끝이 일치하는 순환 구도	동간 + 정관 상대적으로 정관 중시	저택, 보울링그린, 비너스계곡, 에코신전, 테라스, 하하, 내리막 지형, 강	동상, 연못, 캐스케이드	문화화된자연+인문경관: Eye-Cather,방앗간, 다리, 강, 전원풍경

Ⅴ. 마무리

이 글은 정원 속에서의 걷기의 여러 의미와 차원을 논하고, 그것을 세 개의 다른 정원에 대입시켜 걷기와 정원과의 상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정원에 따라 감상 내용이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걷기의 방식이나 유형도 다르다는 점에서 걷기는 정원 설계의 중요한 항목이다. 단일의 이상적 시선을 갖는 정형식 정원(Solnit, 2000: 90)에 비해 자연식 정원은 그 안에 "숨겨진 경이를 발로 찾아가 발견해내기를 기다리는"[23] 정원이다. 그러므로 자연식 정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동선 구성과 그에 따른 체험 연출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곡선으로 이리저리 굽어지며 이어지는 동선상에서 흩어지기 쉬운 시선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히 잡아두거나 유도하기 위한 시각적 조절 기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정원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걷기와 보기라는 인체의 두 동작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큰 곳이 자연형 정원인 것이다.

자연형 곡선 위주로 구성된 금쇄동, 졸정원, 뤄삼정원은 걷기와 그를 통한 시각 체험이 정원 감상의 기본 수단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그 구체적 실천 양상으로서 걷기의 특질이나, 그에 따른 시각적 체험이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각 정원의 조영 의도 및 성격이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원 속에서의 걷기는 정원 감상의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라고 보면, 정원의 조성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다른 걷기가 요구되고 동선 및 조절장치도 그에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23)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에 대한 Hunt의 묘사를 빌린 표현이다.

참고문헌

『金鎖洞記』

計成.『園冶』

『與猶堂全書』〈題黃裳幽人帖〉

김우창,『풍경과 마음: 동양의 그림과 이상향에 대한 명상』(서울: 생각의 나무, 2003).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외, 박종성 역,『생각의 탄생』(서울: 에코의서재, 2007). 213-237쪽.

성종상,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문화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 고산 윤선도의 원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성종상.『고산 윤선도원림을 읽다』(도서출판 나무도시, 2010).

신은경,『풍류-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사, 1999.

이덕형,『이콘과 아방가르드: 초월적 성스러움의 문화적 표상』(서울: 생각의 나무, 2008).

장파, 유중하 외역,『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크리스토프 라무르, 고아침역,『걷기의 철학』(서울: 개마고원, 2007).

彭一剛,『중국고대 정원림의 분석』(김종태 역, 문화재관리국. 1989).

해남군(1999),『윤선도 유적 및 현산고성』. 명지대학교부설한국건축문화연구소.

해남군(2011),『고산 윤선도정원유적 정비계획』.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해남문화원(1996),『고산문학현장조사보고서』. 고산문학축제총서 제1집.

Berton, David, de., 김화영역,『걷기예찬』(서울: 현대문학, 2002).

Charlesworth, Michael. "Movement, Intersubjectivity, and Mercantile Morality at Stourhead". in Landscape Design and tne Experience of Motion ed. by Michel Conan.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Washington D.C. 2003: 263-285.

Cooper, David E., A Philosophy of Gardens (New York: Oxpord, 2006).

Francis, Mark and Hester, Landolph T., ed, The Meaning of Gardens (Cambridge, MIT Press, 1990).

Fung, Stanislaus. "Movement and Stillness in Ming Writings on Gardens". in Landscape Design and the Experience of Motion ed. by Michel Conan. pp. 243-262.

Garcia-Fuentes, Josep-Maria. "Rethinking Pilgrimage through the Theories of Architectural Character and the Picturesque." in Tourism and Seductions of Difference. 1st Conference Tourism-Contact-Culture Research Network. Lisboa: 2010 (http://upcommons.upc.edu/e-prints/handle/2117/11735).

Greiner, Virginia. 1992. "A garden to walk through with your eyes," Landscape Architecture. February.

Hillman, James. "Walking", in James Hillman, Wm H. Whyte, Arthur Erickson ed. The City as

Dwelling: Walking, Sitting, Shaping. Texas: The Dallas Institute Publications. 2001.

Hunt, John, D., Garden and Grove – The Italian Renaissance Garden in the English Imagin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Hunt, John, D., "'Lordship of the Feet': Toward a Poetics of Movement in the Garden", in Landscape Design and the Experience of Motion, ed. by Michel Conan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3). pp.187-213.

Jacks, Ben. "Reimagining Walking: Four Practices".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2004. pp.5-9.

Jean-Jacques, The confession of Jean-Jacques Rousseau, J.M. Cohen tran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Johnson, Norris Brock(2003), "Mountain, Temple, and the Design of Movement: Thirteenth-Century Japanese Zen Buddhist Landscapes", in Landscape Design and the Experience of Motion, ed. by Michel Conan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Lou Quinxi. Chinese Gardens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2003).

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73.

Majkut, Paul. "The Phenomenological FLÂNEUR and Robert Irwin's 'Phenomenological Garden' at the Getty Center". ed. by Anna-Teresa Tymeinieccka. Garden and the Passion for the Infinite.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295-303

Michel Conan, "Introduction: Garden and Landscape Design, from Emotion to the Construction of Self", in Landscape Design and the Experience of Motion, ed. by Michel Conan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3).

Moore, Charles W., Mitchell, William J., Turnbull, JR., William, The Poetics of Gardens, (Cambridge: The MIT Press, 1988).

Potteiger, Mattew and Purinton, Jamie, Landscape Narritive (1998).

Rogers, Elizabeth Barlow. Landscape Design: A Cultural and Architectural History. New York: 2001

Schulz, Max F., "The Walk of the Eighteenth-Century Landscape Garden and the Pilgrim's Circuitous Progress", Eighteenth-Century Studies, Vol. 15, No. 1 (Autumn, 1981). pp.1-25.

Siciliano, Paul C. Landscape Interpretations:History, Techniques & Design Inspiration. Thomson Delmar Learning. 2005.

Solnit, Rebecca. Wanderlust: A History of Walking. Viking Press. 2000.

Sung, Jong-sang. "Thoughts on Walks at Garden of Joseon Dynasty – Focused on Scholar's Gardens in Mountains". Korea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11. 2.